

## 「회장 취임사」

# 과학기술인의 보람된 여건 조성

오늘 본인이 회장에 취임하는 자리에 과학기술처 이 창석 차관을 비롯해서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하신 김 기형 박사님 또 과총 창립당시 부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 동일 박사님 등 우리나라 과학 기술계의 여러 선배들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일편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인이 본 연합회의 회장으로 추대를 받고 매우 주저했습니다. 과총 창립당시의 움직임이라고 할지 그동안 김 윤기 전회장, 김 동일 박사, 주 요한 박사 등 많은 선배들이 會館建立을 위하여 마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생각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최종한 말씀입니다만 노구를 이끄시고 때로는 푸대접을 받아 가면서도 끝까지 초지를 관철하시는 모습을 후배의 한 사람으로서 보아 왔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66년도에 고고의 성을 올렸고, 근 12개 성상을 초대회장으로 계시면서 과학기술단체를 통합하고 회관을 세웠으며 과학기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김 윤기 회장의 뒤를 이어 약관인 본인이 과연 이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또 한가지는 과학기술인 여러 선배동지들이 본인을 총애하여 회장에 선임했다고 하면 과연 본인에게 무엇을 기대 하셨겠는가. 기대하셨다고 하면 그 기대의 절반이라도 부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본인의 역량에 대한 회의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그만 이유는 自身이 우리사회 몇군데에서 봉사하고 있음으로, 인간은 시간이나 정력의 한계가 있을진데 과연 과총의 발전을 위해서 시간과 정력과 능력을 쏟아 놓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꼈읍니다.

이상 세가지 의문에 대해 저 나름대로 상당히 심사숙고하다가 한편으로 이것이 비과학적 이야기 가 될지 모르나,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여건속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 한다면 족하지 않겠느냐는 운명론적 자답이었습니다.

본인은 말더생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말 해입니다. 운명적으로 여기 저기 부지런히 말같이 뛰어 다니라고 하는 운명이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비로서 선배들의 권유에 따라 외람스럽게 이 자리에 취임하기로 결심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으며 취임의 소감을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인은 사업가인지 정치가인지 혹은 다른 무엇인지 자신도 정체를 모릅니다. 그 정체를 모르는 민 관식이라는 사람에게 매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과학기술 방면에 조금 관계를 하다가 정계에 뛰어들어 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동지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실험실 속에서 어떤 실험을 하는 것보다 이 나라 과학기술자의 설움과 애로, 혹은 과학진흥을 위해서 정계에 뛰어들어 일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나를 外道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지 그럭저럭 20여년이 됩니다만 과연 과학진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 스스로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본인은 회장 취임을 놓고 과학도로서 생활하다가 정계에 뛰어들어 갈 때 선배나 친지들에게 했던

## 당면한 현안문제 하나씩 풀터

그 말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생을 바칠수 있다면 이것도 자기충실이고 과학자·동지에 대한 나의 보답도 되리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충이 안고있는 현안문제들을 과연 본인 자신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아직도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작하께서 경제입국, 공업입국, 과학입국을 표방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파기처 차관도 나와 계시지만 파기처를 비롯해서 여러 행정부처에 그야말로 말 같이 뛰어 다니던 무엇인가 한가지씩 해결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정부의 協力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김 박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배들이 나와 계십니다만 선배들이 그 동안에 체험하신 귀중하고 심오한 지도와 동지 및 후배 과학기술자의 중지를 모아서 본인이 깃대를 들고 앞장 선다면 무엇인가 하나 하나씩 풀려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공부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느낀 것은 우리가 그 동안 100억불 수출을 달성하고 또 중동지방에 나가서도 선진국들을 제쳐 놓고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력의 신장에는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은 늘 역사적으로 그러했읍니다만 비교적 자기가 이룩한 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나 인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결코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일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나라 과학입국, 경제입국, 공업입국을 이룩해 나가려면 과학 학술단체, 기술단체가 발전하지 않고는 이룩될 수 없다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초보적인 이론 앞에서,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엄청난 현실에 처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파기총연 산하에 138개 학회 및 단체가 있는데 그나마도 다같이 참여 못하고 60여 학회에 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할당했다는 말을 듣고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국력등에 비해 너무나도 부당하게 처우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기술자가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음지에서 봉사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만, 과학기술인들이 그것을 보람으로 느낄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하며 이에 본인의 일비지력이라도 보태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처에서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조성시책을 펴나가 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또한 과충 사무처 직원 여러분은 하나부터 열까지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본인도 노력하겠읍니다만 사무총장의 지도력과 실천력에 의해서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적으로 비우기 어려운 이 시간에 본인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해주신 여러 선배와 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날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승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78. 3. 7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민 관 식